

천혜의 절경에다 볼거리·즐길거리도 '가득'



"푸르른 바다가 그리운 무더운 여름, 선유도에서 힐링하세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 준비를 마치고 2일부터 피서객을 맞이한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는 2.13㎢의 면적에 550여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63개의 크고 작은 섬이 모여 있는 '서해의 보물섬' 고군산군도의 중심에 놓여 있다.

선유도는 신선 '선'에 놀 '유'를 쓰는데,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신선이 노닐던 섬이라 하여 이름 지어졌다.

특히 이곳의 바닷가는 고운 백사장이 10리에 걸쳐 펼쳐져 있어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망주봉과 선유봉을 비롯한 등산코스는 물론 낙조와 명사십리, 바다낚시와 갯벌체험, 선유스카이라인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짜릿한 체험, 선유스카이라인

국내 최초로 바다에 있는 섬과 섬을 연결해 바다를 횡단하는 '선유스카이라인'은 공중하강체험시설로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신종 레포츠 중 하나이며, 지난해 7월 개장 후 선유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선유스카이라인의 출발지 타워 높이는 45m이며 10층과 11층의 전망대에서는 서해낙조 등 선유팔경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바다를 가르는 공중하강체험시설로는 가장 긴 약 700m 길이로, 선유도 해수욕장이라는 해상관광지에 설치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간의 흐름도 잊게 할 황홀한 절경, 선유팔경

섬과 섬을 연결해 공중하강하는 짜릿한 '선유스카이라인' 각광

망주봉 정상에서 보는 해님이 등 선유8경 장관... 하이킹·트레킹 인기

선유도에는 선유8경이 있다. 선유도 선착장에서 선유도 내부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면 '명사십리해수욕장'이다.

이곳은 백사장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와 맨발로 모래사장 위를 뛰어다녀도 발이 아프지 않다.

해수욕장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선유도를 대표하는 망주봉이 보인다.

큰비가 내리면 망주봉 암벽을 타고 예닐곱 가닥으로 쏟아지는 망주포도 선유8경 중 하나이다.

선유도해수욕장의 황홀한 일몰을 가리키는 선유낙조, 무녀도의 3개 무인도 사이로 고깃배가 돌아오는 삼도귀범, 장자도 밤바다의 고깃배 불빛을 일컫는 장자어화, 고군산군도의 12개 봉우리가 춤을 추는 것 같다는 무산2봉, 신시도의 월영봉(199m)을 오색으로 물들이는 월영단풍, 기러기가 내려앉은 듯 한 형상의 모래톱인 경사낙안도 선유팔경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이 중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선유도에서 보는 해님이이다.

고군산군도의 서쪽 바다와 하늘을 물들이는 일몰은 화려함을 넘어 장엄하다.

특히 망주봉 정상에서 보는 해님이가 장관이지만, 선유도와 무녀도 사이의 선유대교나 이 다리 아래의 해안도로에서도 멋진 일몰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으며, 망주봉과 대장봉, 선유봉에서 해님을 보거나 촬영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각양각색 해수욕장

선유도 해수욕장은 천연 해안사구 해수욕장으로 금빛 모래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100여m를 들어가도 수심이 허리까지 밖에 차지 않고 높은 파도가 없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다.

선유도 해수욕장을 가로질러 전월리 갈대밭을 지나 남악리 마을 뒤편으로 넘어가면 동글동글하고 조그마한 조약돌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몽돌해수욕장이 있다.

오랜 세월 파도에 씻겨 동글동글해진 검은 돌로 이뤄진 해변이 이색적이다.

몽돌해수욕장에서는 물가로 내려서면 파도가 칠 때마다 몽돌들이 부딪치며 내는 청아한 소리가 듣기에도 경쾌하며 해수욕장 정면에 위치한 방축도를 볼 수 있다.

선유도 선착장에서 통계 마을로 접어들면 아담한 옥돌해수욕장으로 통한다.

해변이 모래사장이 아니라 부드러운 옥돌로 되어있어 주변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그 풍경이 일품이다.

한적하고 조용한 경관들이 주변에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한적하고 조용한 경관들이 주변에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 다양한 즐길 거리 가득

서해의 진짜 매력은 펄펄 살아 움직이는 갯생물들을 마음껏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무공해 반찬거리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고군산군도의 갯벌은 인심이 후하다.

선유도 해수욕장 갯벌은 맛조개가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

삼으로 갯벌을 살짝 걷어낸 뒤 송송 툰린 구멍에 소금을 뿌리면 맛조개가 바닷물이 들어온 줄 착각하고 고개를 숙 내밀면 반쯤 올라왔을 때 쯤 잡아야 된다.

갯벌체험 이외에도 바다낚시 등 다양한 체험관광으로 여름철 최고 피서지로 손꼽히고 있다.

▲자전거 하이킹, 구불길 트레킹

선유도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

선유도와 그 이웃 섬들은 면적이 넓지 않고 가파른 오르막길이 없어서 '하이킹의 천국'이라 불릴 만하다.

대여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작은 다리를 통해 선유도와 연결된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 등의 구석구석까지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선유도에서 무녀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9.28km의 하이킹코스는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해수욕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선유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아침 9시를 시작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총 5회 운항하며 패속선은 50분, 고속선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여객선 운항문의는 군산연안여객선터미널(☎063-472-2711~2), 월명여객선(☎063-462-4000), 한림해운(☎063-461-80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2018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 되면 선유도는 배를 타지 않고도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매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주매일 순창지역 애독자 일동